

김오진 제1차관, “주택공급 확대, 공공이 선도적 노력”

- 15일 LH 및 SH 등 6개 지방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주택공급 간담회 -

□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15일(금) 오후 1시 30분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(이하 LH) 및 서울주택도시공사(이하 SH) 등 6개의 지방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주택사업 분야별 릴레이 소통 간담회*를 이어 나갔다.

* 주택건설 시행사 간담회(11.3), 시공사 간담회(11.10) 등

○ 지난 11월에는 주택건설 시행사 및 시공사 단체,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PF 금융지원 방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고,

○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LH 및 6개 지방주택도시공사*와 함께 「주택공급 활성화 방안(9.26)」의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, 올해 공공주택 공급 추진현황 및 사전청약을 포함한 내년도 공급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.

* 서울주택도시공사, 경기주택도시공사, 인천도시공사, 부산도시공사, 충남도시개발공사, 전북개발공사

□ 김 차관은 간담회에서 “국민 주거안정을 근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수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”면서,

○ “공공기관의 존재이유를 고려했을 때 지금과 같이 민간의 공급 여건이 어려울 때일수록 공공이 공공주택 공급에 적극 나서 서민 주택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”라고 강조하였다.

○ 또한, “최근 공공주택의 안전·품질 이슈가 제기된 만큼, 각 공공기관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고품질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
□ 한편,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LH 등 공공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진해 나갈 계획이다.

2023. 12. 15.

국토교통부 대변인